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6년 7월 5주차

- **금리**: 기준금리 인상 대비 국면, 추가 긴축 강도나 폭에 주목 **환율**: 수급 지배 국면, 중동 불안에도 달러 매도 확대에 환율 하락세
- **국내 증시**: 투심, 수급 불안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 **글로벌 증시**: 7월, 안도와 경계 사이, 펀더멘탈보다 통화정책 영향
- **원자재**: 호르무즈 + 바브엘만데브 해협 정상화 여부가 관건 **부동산**: 고가시장 제외 강보합세 기대, 상업용 기간 조정 장기화 전망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y

[반격의 서막]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반도체, 빅테크 2Q 실적 발표

- KOSPI는 투자심리와 수급 간 악순환의 고리로 급락,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권
- 작은 트리거로도 분위기 반전 가능, 2분기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대기
- KOSPI 6천선대에서 등락은 비중확대 기회, 핵심은 견고한 경기/실적 상승 사이클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연일 울리는 사이드카, KOSPI 120 일 이평선 이탈

- 중동발 충격에 국제 유가, 국채 금리 급등, 변동성 장세 지속
- 인텔 호재에도 피크아웃 우려 부각, 반도체 업종 급락
- 위험자산 회피에 업종 전반 약세, 제약/바이오, 필수소비재 업종 선방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2Q26 Review] 삼성에프스홀딩스: 2Q26,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닌 전략

- 목표주가 56만원으로 9.6% 하향, 매수 의견 유지
- 2Q 공급조정으로 감익, 하반기 정상화 기대
- 에핏 —본업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개발 전략에 주목

홍가혜, kahey0,hong@daishin.com

[2Q26 Review] NH투자증권: 모든 부문 수익성 개선, 기대되는 배당정책

- 2분기 순이익 전 부문 수익성 개선되며 사상 최대 실적 경신
- 금리상승으로 우려했던 상품운용수익, 채권/주식운용 선방하며 증가
- 최근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배당수익률 6%, 우호적 자본정책 발표 기대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2Q26 Review] 하나금융지주: 마진과 수수료 모두 우수

- 중앙그룹 디폴트 관련 총당금 전입액 예상 상회하여 컨센 소폭 하회
- 증권 실적 크게 개선, 비이자이익 경상적 7,400억원 최고치 경신
- 하반기 추가 자사주매입 5,000억원, '26년 총환원액 2.2조원 전망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2Q26 Review] 제일기획: 혼자서도 잘해요

- 2Q26 GP 4.9천억원(+1% yoy), OP 927억원(+1% yoy), 추정치 부합
- 계열 마케팅 예산 축소 부담을 비계열, 북미, 디지털로 방어
- GP, OP 대비 높은 순이익 성장률. 26E DPS 1,340원, 7.1%, 분리과세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2Q26 Review] 기아: 양호했던 실적, 당혹스런 주가

- 양호한 마진에도 불구하고, 2H26 수익성 악화 우려로 2Q 실발 당일 주가 급락
- 2H26 북미 텔루라이드 중심의 HEV 믹스 개선 감안 시, 우려는 과도
- 7/24일 증가 기준 배당수익률 5.7%로 연말로 가며 배당주 매력 부각될 것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2Q26 Review] 현대모비스: 여전히 Physical AI 대장주

- 목표 기업가치 62조원 = 본업 48조원 + 로봇 14조원 가치 반영
- 부품-AS 사업 간 수익성 보완하며 안정적인 연결 손익 지속할 것
- BD형 액추에이터 사업에 따른 Physical AI 모멘텀 대장주 수혜 재개 예상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2Q26 Review] 현대위아: 저점은 보았다

- 2H26 1) 국내/멕시코 엔진 가동률 상승, 2) 방산 매출 증가 긍정적
- 1) 방산 사업 매각 여부/방식, 2) 논오토 사업 확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현금 거래로 방산 매각 진행된다면, 자금 확보 → 신사업 기대감 반영 예상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2Q26 Review] 현대로템: 지연되는 수주, 아쉬운 실적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40,000원으로 하향 조정
- 연결 영업이익 2,324억원(-9.7% YoY, OPM 14.4%), 추정치 부합
- 27년 폴란드 EC2 K2PL 매출 일부 28년으로 이연 전망

최정환, jeonghwan.choi@daishin.com

2026년 7월 5주차

[금리] 국고 3년 3.60~4.05%

기준금리 인상 대비 국면, 1회 인상 재료는 반영했으나 추가 긴축 강도나 폭에 주목
한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가시화로 변동성 확대 및 분출 여지 상존. 추후 긴축 강도와 폭에 대한 추가 프라이싱 예상. 다만 인상 재료 소화로 금리 정점 확인 시 제한적 하향 안정화 가능. 미국은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진정으로 장기금리는 정점 확인 인식 확산. 반면 통화당국의 매파적 기조 전환 시사로 단기금리의 변동성 확대 우려는 당분간 상존할 것

[환율] 달러-원 환율 1,450~1,530원

수급이 지배하는 국면, 중동 불안에도 달러 매도 확대에 환율 하락세 지속

7월 초 1,560원에 육박했던 달러-원 3주 만에 90원 가량 급락.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진정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환전 발 달러 공급이 강해지면서 달러 매수 심리 약화.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에도 현재는 수급이 지배하는 국면. 그러나 중동 문제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수급 재료 소멸 후에는 환율 반등 가능성 높음

[국내 증시] KOSPI 6,500 ~ 11,500p

투심, 수급 불안으로 인한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반도체, 빅테크 실적 발표 대기
통화정책 불확실성, 수급 불안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실적, 경기 등 펀더멘털 동력은 견고. 12개월 선행 EPS 1,171p로 레벨업.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KOSPI 1만 시대 가능. 미국 - 이란 무력 충돌로 인한 유가 반등, 물가 상승 우려는 단기 변동성 확대 변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빅테크 실적 호조, AI Capex 확대 모멘텀이 상승 지속

[글로벌 증시] S&P500 7,000 ~ 8,400p

7월 글로벌 증시, 안도와 경계 사이. 펀더멘탈보다는 통화정책 영향권

6.5일 미국 5월 고용 호조가 가져온 통화 긴축 부상 이후 미국 증시는 고점을 낮춰가는 중. 달러 강세, 높은 수준의 장기금리 등 위험선호심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매크로 환경 지속. 2/4분기 어닝 시즌 불구, 미국 펀더멘탈은 증시 방향성 결정 요인이 아닌 변동성 축소 요인으로 역할 바뀔 것. 한번은 겪어야 할 물가, 긴축이라는 파고.

[원자재] WTI 70~95\$/bbl.

7월말까지 유효한 비축유, 이제 호르무즈 + 바브엘만데브 해협 정상화 여부가 관건
예멘 후티 반군(친이란), 사우디 측이 Sana 공항 공격했다는 이유로 Yanbu항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봉쇄(바브엘만데브 해협)하겠다고 선언. 350만b/d에 달하는 운송 차질 우려 상승. 문제는 장기화 여부. IEA는 아시아 지역의 부족 문제 해소하고자 비축유 4억배럴 방출, 그 효과는 7월말限.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해협 개방이 지연될 시 유가 상방 변동성 경계 필요

[부동산] 주택 : 강보합, 상업 : 약보합

주택은 고가시장 제외하면 강보합세 기대, 상업용은 기간 조정 장기화 전망

주택 : 세제 강화 수준에 따라 고가 시장 추가 조정 가능하나, 전세가울 높은 중저가 지역 및 구매력 급증한 수도권 동남권 지역 가격 상승 지속 예상, 임대 시장은 전반적 강세 전망

상업 : 지속적인 시장 금리 상승과 오피스 임대 시장 둔화로 보수적인 관점 필요, 물류 섹터는 우량 자산 중심으로 임대 시장 회복 나타나 조정 시 선별/분산 투자 의견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반도체, 빅테크 2Q 실적 발표

- KOSPI는 투자심리와 수급 간 악순환의 고리로 급락,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권
- 작은 트리거로도 분위기 반전 가능, 2분기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대기
- KOSPI 6천선대에서 등락은 비중확대 기회. 핵심은 견고한 경기/실적 상승 사이클

KOSPI는 투자심리와 수급 간 악순환의 고리로 급락,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권

최근 KOSPI, 반도체 급락과 억눌림은 악재성 이슈와 뉴스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심리와 수급 간의 악순환 고리 영향이 크다고 생각. 이를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을 통해 보면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음. '재귀성(Reflexivity) 이론'은 '세상은 불완전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시작. 시장/투자자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다시 시장 가격에 미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시장은 균형을 이루기보다 극한적인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야 안정기조로 되돌아 오는 습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투자심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균형이 생기면 균형점을 찾아가기보다는 일정기간 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 최근 KOSPI의 급락도 앞서간 AI, 반도체 산업 Peak Out 정점 통과 우려, 재점화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등이 서로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

그 결과 현재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5.7배에 불과, 2000년 이후 역사적 저점인 5.14배에 근접한 수준,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권. 과열권에 있던 IT하드웨어, 반도체 등 다수의 주도주들 실적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전환. 월간 기준 19개 업종이 실적대비 저평가 영역에 위치할 정도로 가격/밸류에이션 매력 높은 상황

작은 트리거로도 분위기 반전 가능, 2분기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대기

투자 확대가 공급 확대로 얹히면서 반도체 업황 정점 통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적 변동성은 제한적이고 27년까지 실적 전망 우상향, 증가 예상. 공급 확대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반전, 업황 정점 통과, Peak Out은 아직까지 가우라고 생각. 2017년 ~ 18년의 경우에도 분기 실적이 전분기대비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유입되면서 반도체 주가 고점 형성. 현재 컨센서스 기준 27년까지 전분기대비 이익 증가율(+) 유지. 최근 KOSPI, 반도체 실적 전망이 소폭 하향 조정돼 SK하이닉스 영향. 높아진 눈높이 조정 과정으로 판단. 오히려 비반도체 실적 전망은 상향 조정 이어가는 중

이번주 KOSPI 재귀성 이론의 고리가 약화되거나 끊어질 가능성 높음. 1) 지난주 글로벌 반도체 반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반도체의 억눌린 주가는 극단적인 쓸림현상의 후폭풍과 레버리지 ETF로 대변되는 수급 불안 간의 악순환의 고리때문. 그만큼 투자심리가 취약함을 시사하는 한편, 작은 트리거로도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다고 생각. 2) 주말 동안 이재명 정부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한/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 간의 가시적인 협력 구도 형성은 다시 한 번 AI 산업 성장과 그 중심에 한국 기업이 자리하고 있음을 환기. 3) 7월 29일 SK하이닉스, 30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한 AI 산업 및 반도체 업종 업황, 실적 불확실성 제어 및 업황, 실적 개선 기대 재유입 가능할 전망

주 초반 KOSPI 6,000선대에서 등락은 비중확대 기회. 핵심은 견고한 경기/실적 상승 사이클. 변동성을 활용한 매집, 또는 버티기 전략 유지

강한 탄성을 가진 스프링은 강하게 눌린 만큼 탄력적으로 튀어오르기 마련. 눌릴대로 눌러있는 KOSPI라는 스프링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 KOSPI 6배 이하에서 매도 실익은 없다고 판단.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매집하거나 버티기 전략 유지

이번주 초반 6,000선 초반으로 추가 하락할 경우 추격 매도는 자제하고, Holding 또는 매수 강화 필요. 특히, 단기 낙폭과대이면서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에 위치한 기존 주도주(반도체, IT하드웨어, IT가전, 2차전지, 조선, 화학, 기계)를 6,000선대에서는 변동성을 활용한 매집 전략 유효.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으로 실적/업황 불확실성을 선반영함에 따

연일 올리는 사이드카,

KOSPI 120일 이평선 이탈

- 중동발 충격에 국제 유가, 국채 금리 급등, 변동성 장세 지속
- 인텔 화재에도 피크아웃 우려 부각, 반도체 업종 급락
- 위험자산 회피에 업종 전반 약세, 제약/바이오, 필수소비재 업종 선방

중동발 충격에 국제 유가, 국채 금리 급등, 변동성 장세 지속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속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또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이란에 묻겠다고 경고하며 확전 우려를 자극. 여기에 이란이 이라크가 제안한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의 장기화 가능성도 부각

이에 WTI와 브렌트유 선물은 각각 배럴당 90달러와 100달러를 돌파. 이후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일부 진정됐으나, 높아진 유가 수준을 반영해 미국채 2년물, 10년물 금리가 약 4.36%, 4.71%까지 상승한 점은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동 긴장 고조로 장중 낙폭이 확대되면서 KOSPI와 KOSDAQ에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금융위원회가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조기 상향할 예정이며, 수급 쏠림과 변동성 완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

인텔 화재에도 피크아웃 우려 부각, 반도체 업종 급락

인텔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16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데이터센터 매출도 59% 증가하며 견조한 AI 인프라 수요를 확인. 장기 계약과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CapEx 계획을 200억달러 이상 상향했고, 메모리 공급 병목을 언급한 점도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를 지지

다만 모건스탠리의 Shawn Kim은 AI가 주도하는 메모리 산업의 호황이 변곡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메모리 계약가격도 4분기 중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이에 반도체 업황의 고점 통과 우려가 재차 유입되면서 전일 급등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되돌림 매물이 출회돼 증시 약세를 주도

반도체: 삼성전자(-7.6%), SK하이닉스(-8.3%), 한미반도체(-7.4%)

위험자산 회피에 업종 전반 약세, 제약/바이오, 필수소비재 업종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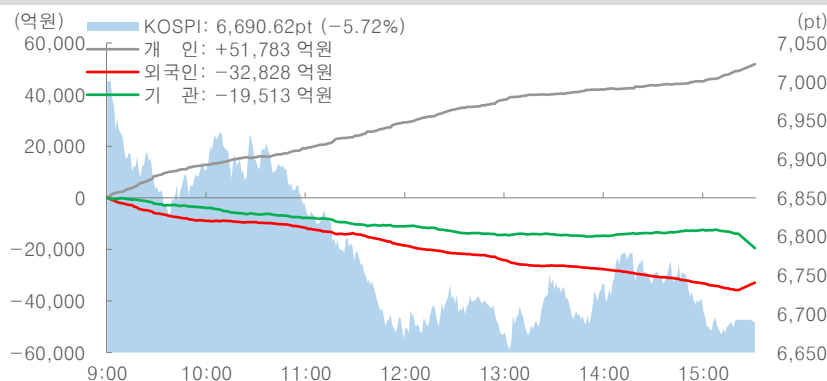
위험자산 회피심리로 업종 전반 약세. 개별 화재가 부각된 업종으로 순환매 양상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10.1%), 유한양행(+4.9%), 셀트리온(+3.1%)

필수소비재: BGF리테일(+4.3%), KT&G(+1.7%), 삼양식품(+2.1%)

전력기기: LS ELECTRIC(-9.6%), HD현대일렉트릭(-6.8%), 효성중공업(-6.5%)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삼성에피스 홀딩스 (012620)

홍가혜

kahye0.hong@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60,000

하향

현재주가

388,500

(26.07.24)

제약업종

2Q26,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닌 전략

- 목표주가 56만원으로 9.6% 하향, 매수 의견 유지
- 2Q 공급조정으로 감익, 하반기 정상화 기대
- 에피스 본업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개발 전략에 주목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560,000원으로 9.6% 하향

목표주가는 12mF EBITDA 6,749억원에 Target multiple 21.3배를 적용해 산출. R&D 투자 확대에 따른 이익 추정치 조정 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9.6% 하향. 다만 현재 주가에는 신약 가치 및 플랫폼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Open innovation 전략의 성과 가시성이 높아질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2Q26 일시적 공급 조정에도 하반기 정상화로 매출 가이드라인 유지

2Q26 연결 매출액 3,919억원, 영업이익 588억원 기록. 연결 영업이익에는 PPA 개발비 상각 및 채고자산 미실현이익 등 비현금성 회계조정 249억원이 반영됨.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출액 3,922억원(-2% yoy), 영업이익 866억원(-4% yoy, OPM 22%)을 기록. 제품 공급 일정 조정으로 매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하반기 공급 정상화를 바탕으로 연간 10% 매출 성장 가이드라인을 유지함.

바이오시밀러, 지역·품목 확대와 파이프라인 진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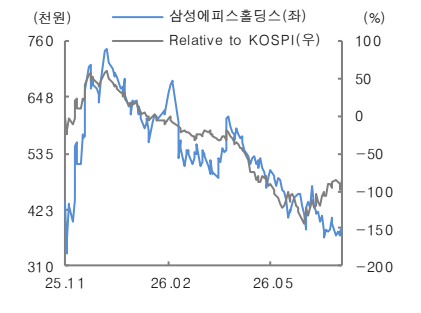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순항 중임. SB15(Eylea BS)는 6월 EU 직접판매를 시작했으며, SB17(Stelara BS)은 일본 출시와 캐나다·호주 판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품목 및 지역 확대가 진행 중임. 개발 측면에서는 SB27(Keytruda BS)이 글로벌 임상 1상 및 3상 중간분석에서 약동학(PK) 및 객관적반응률(ORR) 동등성을 입증하며 연내 임상 완료 가능성을 높임

단기 실적보다 Open Innovation 전략 구체화에 주목

연결 손익은 당분간 PPA 상각·채고 미실현이익 환입 등 비현금성 요인에 좌우되는 만큼, 단기 실적 변동보다는 에피스 본업 성과와 신약 개발 방향, 그리고 이번 분기 가시화된 Open Innovation 전략의 구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당사는 중국 R&D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 최대 바이오텍 인큐베이션 센터인 ATLATL Innovation Center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삼성서울병원과 AI·의료데이터 기반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음. 또한 총 2,000억원 규모의 Life Science Fund 3호를 조성하고 에피스가 약 396억원(20%)을 출자하는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반을 확대 중임. 기존 바이오시밀러 중심 사업에서 적극적 외부 기술 확보를 통한 신약개발 전략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신약개발 성과 가시성이 높아질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함.

KOSPI	6690.62
시가총액	9,66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5%
자본금(보통주)	6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43,000원 / 335,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28억원
외국인지분율	6.50%
주요주주	삼성물산 외 8 인 74.33% 국민연금공단 5.7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8	-32.3	-39.1	0.0
상대수익률	15.5	-34.5	-54.6	0.0



NH투자증권 (005940)

박혜진
권용수RA

hyejin.park@daishin.com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Buy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5,00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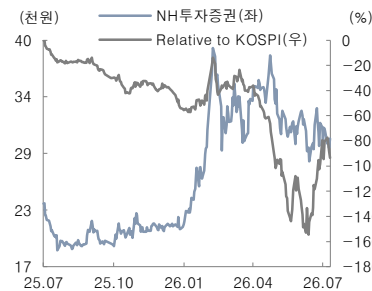
현재주가
(26.07.23)

30,000

증권업종

KOSPI	7,096.89
시가총액	11,54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7%
자본금(보통주)	1,84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9,200원 / 18,66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64억원
외국인지분율	13.18%
주요주주	농협금융지주 외 7 인 63.27% 국민연금공단 7.6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3	-14.2	25.0	42.2
상대수익률	20.6	-21.7	-12.1	-36.2



모든 부문 수익성 개선, 기대되는 배당정책

- 2분기 순이익 전 부문 수익성 개선되며 사상 최대 실적 경신
- 금리상승으로 우려했던 상품운용수익. 채권/주식운용 선방하며 증가
- 최근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배당수익률 6%, 우호적 자본정책 발표 기대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5,000원 유지

'26년 반기 순이익 9,652억원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7.6% 증가. 우리는 연간 순이익 1.56조원 예상하는데, 급증한 이익에 따라 배당금도 증가할 전망. 우리는 최소 DPS 1,850원('25년 1,350원) 전망하는데, 최근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배당수익률이 6%까지 상승. 동사는 올해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져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못했을 것인데, 지난 6월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하며 전사적 사업 방향성 구체화되고 있을 것. 이는 배당정책도 포함이며 향상된 이익 체력으로 우호적인 자본정책 발표할 것으로 전망

2Q26 지배주주 순이익 4,896억원(QoQ +2.9%, YoY +90.7%) 기록

2분기 순이익은 당사 추정 및 컨센서스를 20%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 전 부문 수익성 개선되며 분기 사상 최고 실적 경신.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 5,155억원(QoQ +28.8%, YoY +217%) 기록, 점유율 11.4% 상승하며 순조로운 수익 개선. 당 분기 주목할 점은 자산관리 수수료수익으로 957억원(QoQ +72.6%, YoY +210%), 사상 최고 실적 달성. 목표전환형 랩 판매가 큰 폭 증대되어 자산관리수수료만 477억원(QoQ +172%) 수취. '25년 누적 랩 상품 판매액은 0.8조원이었는데, '26년 상반기에만 3조원 기록. 금융상품잔고 181조원으로 분기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발행어음 잔고는 8.8조원까지 증가

IB수수료수익 1,083억원(QoQ +11.3%, YoY -16.7%), 채무보증수수료 888억원(QoQ +29.9%), 인수 및 주선수수료 148억원(QoQ -34.2%), 매수 및 합병수수료 47억원(QoQ -27.2%)으로 PF관련 딜 증가한 영향으로 양호한 실적 달성. 우려했던 상품운용수익은 채권/주식운용 선방하며 2,892억원(QoQ +6.9%, YoY +156%)으로 1분기 대비 오히려 증가. 판관비는 교육세, 증권거래세 증가, ETF 거래 급증에 따른 LP 헤지수익에 대한 과세 증가하여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순영업수익	2,012	2,676	3,719	2,767	2,819
영업이익	901	1,421	2,106	1,154	1,206
당기순이익	687	1,032	1,562	897	935
YoY	23.4%	50.2%	51.4%	-42.6%	4.2%
EPS	2,178	2,889	4,223	2,425	2,528
BPS	25,758	26,435	29,235	30,268	32,796
PER	6.2	7.3	7.1	12.4	11.9
PBR	0.52	0.80	1.03	0.99	0.91
ROE	8.46	10.93	14.47	8.01	7.71

자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하나금융지주 (086790)

박혜진
권용수RA

hyejin.park@daishin.com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60,000

유지

현재주가

(26.07.24)

132,600

은행업중

마진과 수수료 모두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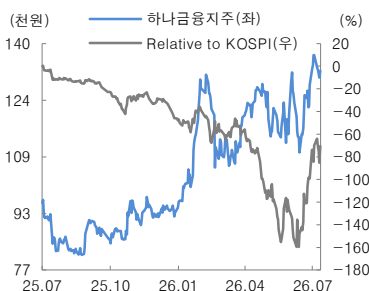
- 중앙그룹 디폴트 관련 충당금 전입액 예상 상회하여 컨센 소폭 하회
- 증권 실적 크게 개선, 비이자이익 경상적 7,400억원 최고치 경신
- 하반기 추가 자사주매입 5,000억원, '26년 총환원액 2.2조원 전망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27년 달성 예정이었던 총 환원율 50%가 올해로 조기 달성 전망. 2분기 DPS 1,155원 결의하였으며 3분기까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4분기부터 비과세 배당 시행 대상. 10월까지 2,500억원 자사주 매입 예정이며 누적 금액은 7,000억원으로 우리는 동사의 '26년 자사주 매입/소각 금액을 9,000억원으로 추정하여 4분기 추가 2,500억원 발표할 것으로 전망. '26년 EPS 증가율 10.8%, 총 환원금 15.6%, 총 환원율 49.2% 달성 전망하며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

KOSPI	6,690.62
시가총액	36,32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5%
자본금(보통주)	1,50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36,800원 / 81,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168억원
외국인지분율	68.51%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8.80%
The Capital Group Companies, Inc. 외 28 인 6.7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5.9	7.4	31.0	45.5
상대수익률	46.8	3.9	-2.3	-30.6



2Q26 지배주주 순이익 1.19조원(QoQ -1.4% YoY +1.7%) 기록

2분기 순이익은 당사 추정 및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였는데 중앙그룹 디폴트 관련 충당금 적립액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데 기인. 그룹 전체 이자이익이 1분기 대비 8.1% 감소하였는데, 이는 하나생명 변액보험 계정변경효과에 기인하며 은행 이자이익은 2.28조원으로 1분기 대비 오히려 4.4% 증가. 마진이 3bp 상승하였으며 원화대출 성장률도 순조로웠기 때문. 전술한 계정 변경 효과 2,900억원은 비이자이익으로 반영

비이자이익 1.03조원(QoQ +76.4%, YoY +40%)으로 역대 최고 달성하였는데, 전술한 계정 변경 효과 제외하면 7,400억원 수준으로 추정. 그렇다 하더라도 역대 최고 실적임에는 변함 없으며 증권, 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 실적 모두 개선되었고 증권 순이익이 1,698억원(QoQ +64.4%, YoY +440%)으로 거래대금 증가(QoQ +34%)를 감안해도 상당히 증가한 영향. 증권은 수수료수익이 3,033억원(QoQ +55.3%, YoY +167%)으로 크게 개선되었는데,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 외에도 Wrap판매 증가에 기인. 통상 Wrap상품이 여타 금융상품 대비 수수료율이 높은 편임

일회성 요인으로 중앙그룹 디폴트 관련 749억원 충당금 전입, 외화환산손실 275억원, 보험 계리가정 변경 관련 524억원 기타영업손실 반영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순영업수익	10,684	11,377	12,454	12,359	12,676
영업이익	4,855	5,351	5,978	6,129	6,351
순이익	3,739	4,003	4,435	4,472	4,657
YoY(%)	8.3	7.1	10.8	0.8	4.1
ROE	8.8	9.0	9.3	9.0	8.8
EPS	12,631	13,523	14,984	15,107	16,831
BPS	144,259	150,606	160,578	167,764	191,336
PBR	0.29	0.61	0.82	0.79	0.69
PER	3.3	6.8	8.8	8.8	7.9

자료: 하나금융지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제일기획 (030000)

김화재

ho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7,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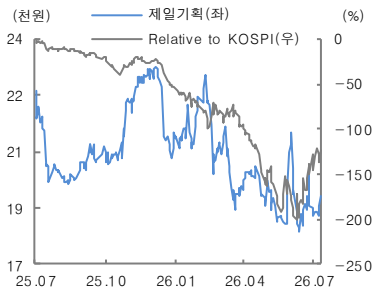
19,110

(26.07.24)

미디어업종

KOSPI	6690.62
시가총액	2,19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3%
자본금(보통주)	2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3,150원 / 17,98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3억원
외국인지분율	18.25%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5 인 28.36% 국민연금공단 9.1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8	-3.2	-9.0	-10.1
상대수익률	32.6	-6.3	-32.1	-57.1



혼자서도 잘해요

- 2Q26 GP 4.9천억원(+1% yoy), OP 927억원(+1% yoy), 추정치 부합
- 계열 마케팅 예산 축소 부담을 비계열, 북미, 디지털로 방어
- GP, OP 대비 높은 순이익 성장률, 26E DPS 1,340원, 7.1%, 분리과세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7,000원 유지

12M FWD EPS 1,998원에 PER 13배(최근 5년, 21~25년 평균) 적용

2Q26 Review: 계열 마케팅 예산 축소 부담, 비계열, 북미, 디지털로 방어

2Q26 GP 4.9천억원(+1% yoy), OP 927억원(+1% yoy), 순이익 634억원(+25%)
본사 GP 1.1천억원(+1% yoy), 해외 GP 3.8천억원(+1% yoy)

계열 GP 3.5천억원(+0.3% yoy), 비계열 GP 1.4천억원(+4% yoy)

디지털 GP 2.8천억원(+3% yoy), BTL GP 1.5천억원(+2% yoy)

본사 GP 1.1천억원(+1% yoy), 북미 GP 822억원(+6% yoy)

중국 GP 929억원(-8% yoy), 유럽 GP 825억원(-0.4% yoy)

주요 광고주의 가전 사업 부진 및 모바일 사업의 원가 상승 부담으로 마케팅 위축
Naver, Philip Morris 등 국내외 신규 고객사 발굴하며 비계열로 방어

분야별로는 마케팅 트렌드를 반영한 BTL과 디지털 집중 공략

지역별로는 성장 동력인 북미의 고성장 지속. 다만, 중국과 유럽의 부진 지속

유럽은 사업 재편을 통해 1Q26에 일시적으로 비용 선반영, 실적 연착륙 단계

지난 5년간 유럽 자회사 영업권 손상 마무리. GP, OP 대비 순이익 성장률 양호

여전히 높은 주주환원 매력도

26E GP 1.9조원(+3% yoy), OP 3.4천억원(+2%), 순이익 2.3천억원(+11%)

26E DPS 1,340원(+9% / +110원 yoy), 수익률 7.0%. 분리과세 적용

연내 보유 자사주 12%에 대한 전부(일부) 소각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2025	1Q26	2Q26				3Q26		
			직전추정	집중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총이익	484	442	498	490	1.2	10.7	500	476	4.1 -2.7
영업이익	92	37	94	93	0.6	153.9	94	103	6.9 10.6
순이익	51	28	60	63	24.7	124.3	60	66	2.4 4.5

자료: 제일기획,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총이익	1,727	1,860	1,912	2,019	2,122
영업이익	321	337	343	359	378
세전순이익	313	305	343	347	367
총당기순이익	208	209	231	233	246
지배지분순이익	208	208	229	230	244
EPS	1,804	1,804	1,991	2,002	2,118
PER	9.4	11.6	9.4	9.4	8.9
BPS	12,674	13,668	14,576	15,399	16,319
PBR	1.3	1.5	1.3	1.2	1.2
ROE	15.1	13.7	14.1	13.4	13.4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제일기획,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기아 (000270)

김위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 RA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55,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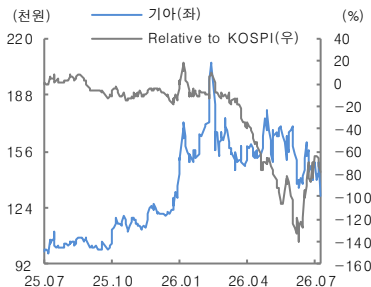
130,500

(26.07.24)

자동차업종

KOSPI	6690.62
시가총액	50,94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77%
자본금(보통주)	2,13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06,000원 / 100,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322억원
외국인지분율	38.92%
주요주주	현대자동차 외 5 인 36.99% 국민연금공단 6.7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0	-14.9	-17.9	24.3
상대수익률	19.0	-17.7	-38.8	-40.7



양호했던 실적, 당혹스런 주가

- 양호한 마진에도 불구하고, 2H26 수익성 악화 우려로 2Q 실발 당일 주가 급락
- 2H26 북미 텔루라이드 중심의 HEV 믹스 개선 감안 시, 우려는 과도
- 7/24일 증가 기준 배당수익률 5.7%로 연말로 가며 배당주 매력 부각될 것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55,000원 유지

목표 기업가치 99조원(TP 25.5만원)은 본업 80조원 + 로봇 15조원 + SDV 3조원 가치 반영해 산출. 2Q26 실적 양호했으나, 1) 높았던 시장 눈높이(셀은), 2) 2H26 추가적인 믹스 악화, 3) 생산원가 상승 우려에 실적발표 당일(7/24일) 주가 -13% 급락. 유럽 EV 물량 확대에 따른 수익성 부담 불가피하나 2H26 텔루라이드 중심 북미 HEV 비중 확대로 8%대의 안정적인 수익성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 주주 환원 가이던스(TSR 35%)와 배당소득분리과세 기준 감안 시, 2026년 DPS 7,500원 상회 예상. 이에 따른 배당수익률 6%로 하방 부담 제한적. 연말로 가며 안정적 배당주로서 매력 재차 부각될 것

2Q26 매출 33조(YoY +13%, 이하 YoY), OP 2.6조(-5%), OPM 8% 시현

OP 컨센(2.8조)/당사 추정(2.7조)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 시현. 2Q 유럽 EV 물량 확대에 따른 인센/믹스 악화(YoY -9,000억)에도 불구하고, 물량(+3,150억)/환율(+2,970억)/비용절감(+1,530억) 효과로 OPM 8% 달성. 2Q26 PT 믹스는 HEV 21%(YoY +7%pt), BEV 13%(YoY +6%pt) 기록. 특히, 유럽 BEV 비중이 35%로 +15%pt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 위한 인센 상승/수익성 부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

2026년 매출 130조(+14%), OP 11조(+17%), OPM 8% 전망

2H26 PT 믹스 악화/생산원가 우려 지속되고 있으나, 1) 생산차질 정상화, 2) 북미 텔루HEV 중심 믹스 개선, 3) 환율 기저(2H25 평균 1,417원) 감안 시, 추가 마진 악화 우려는 제한적. 쏘렌토/카니발/스포티지/셀토스 등 주요 RV 차종 판매 통해 연결 손익 영향 상쇄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를 통해 동사가 제시한 2026년 연간 매출 122조/OP 10조/OPM 8% 가이던스 달성 가능할 것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2Q26				3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9,350	29,502	32,178	33,037	12.6	12.0	32,219	33,467	16.7	1.3
영업이익	2,765	2,205	2,723	2,629	-4.9	19.2	2,794	2,744	87.7	4.4
순이익	2,269	1,831	2,219	2,328	2.6	27.1	2,328	2,173	52.5	-6.7

자료: 기아, Fr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07,449	114,141	130,424	135,871	139,316
영업이익	12,667	9,078	10,581	11,589	12,170
세전순이익	13,500	10,241	11,632	12,579	13,168
총당기순이익	9,775	7,554	8,550	9,246	9,678
자비지분순이익	9,773	7,561	8,550	9,246	9,678
EPS	24,413	19,111	21,899	23,681	24,789
PER	4.1	6.4	7.8	7.2	6.9
BPS	139,469	154,657	171,931	188,222	204,627
PBR	0.7	0.8	0.8	0.7	0.6
ROE	19.1	12.9	13.3	13.2	12.6

주: EPS와 BPS, ROE는 지배분 기준으로 산출/자료: 기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현대모비스
(012330)

김위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 RA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90,000
유지
현재주가 482,000
(26.07.24)
자동차업종

KOSPI	6690.62
시가총액	43,73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66%
지분금(보통주)	48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68,000원 / 283,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862억원
외국인지분율	37.22%
주요주주	기아 외 7 인 32.70% 국민연금공단 9.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3	14.1	5.4	62.8
상대수익률	19.9	10.4	-21.4	-22.4



여전히 Physical AI 대장주

- 목표 기업가치 62조원 = 본업 48조원 + 로봇 14조원 가치 반영
- 부품-AS 사업 간 수익성 보완하며 안정적인 연결 손익 지속할 것
- BD형 액츄에이터 사업에 따른 Physical AI 모멘텀 대장주 수혜 재개 예상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90,000원 유지

TP 69만원(기업가치 62조원)은 본업가치 48조원에 로봇가치 14조원 반영해 산출
보스턴다이나믹스(BD)의 바디 액츄에이터 공급사로 포지셔닝 공식화. 연내 개발
완료 후, 초도 생산 돌입 예정. BD의 실적은 지분보유 계열사(현대차/기아/모비스/
글로벌비스) 모두 지분법으로 인식하나, 동사는 BD형 액츄에이터 공급 통해 직접매
출 인식 예상. '26년 고점 대비 주가 -59% 하락했으나, 그룹 Physical AI 모멘텀
재개에 따른 주가 회복탄력성 가장 빠르고 클 것이라 판단

2Q26 매출 16조(YoY +2%, 이하 YoY), OP 9,752억(+12%), OPM 6% 시현

OP 컨션(9,075억)/당사 추정(8,695억) 상회하는 호실적 시현. 현대기아 생산차질
및 동사 인도공장 화재 이슈로 모듈/부품의 적재(대신 -1,265억 추정)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18억원의 흑자 시현하며 우려 대비 이익체력 개선된 점 긍정적. **[모듈/
부품]** 매출 13조(+2%)/전동화 1.4조(-11%)/핵심 4.0조(+10%)/모듈 7.5조(+2%),
OP 218억(-48%). 전동화 물량감소/메모리 가격 상승(YoY -615)/인도 공장 화재
(-240억) 영향에도 불구하고, 핵심부품 수익성 개선/모듈 부품 흑자 구조로 BEP 달성.
[AS] 매출 3.4조(+3%), OP 9,534억(+15%), OPM 28%. 관세(YoY -590억) 반영
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외형 및 환율 효과로 견조한 고수익성

2026년 매출 65조(+5%), OP 3.9조(+17%), OPM 6.1% 전망

2H26 1) 인도 공장 화재 영향(YoY -800억), 2) 반도체 가격 상승, 3) 운임 부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1) 고객 비용 정산, 2) AS 수익성 효과로 상회하고
흐름은 유효할 것. 2H26 내 AS 고수익성 - 모듈부품 수익성 개선 효과로 분기 조
단위 연결 영업이익의 시현할 것으로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2025	1Q26	2026				3Q26			
			직전	잠정	YoY	QoQ	Consen	추정	YoY	QoQ
매출액	15,936	15,561	15,848	16,325	2.4	4.9	16,628	15,875	5.6	-2.8
영업이익	870	803	870	975	12.1	21.5	908	1,049	34.5	7.6
순이익	932	882	1,061	1,058	13.5	20.1	1,044	1,266	36.2	19.6

자료: 현대모비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57,237	61,118	64,588	68,469	72,084
영업이익	3,073	3,357	3,928	4,779	5,220
세전순이익	5,264	5,115	5,929	6,976	7,665
총당기순이익	4,060	3,665	4,441	5,232	5,749
자배지분순이익	4,056	3,656	4,437	5,227	5,743
EPS	43,480	39,682	49,148	58,328	64,089
PER	5.4	9.4	15.5	13.0	11.9
BPS	494,024	533,693	588,658	647,718	717,713
PBR	0.5	0.7	0.8	0.7	0.7
ROE	9.4	7.7	8.7	9.4	9.4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자료: 현대모비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현대위아 (011210)

김위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 RA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0,000

유지

현재주가

56,600

(26.07.24)

자동차업종

저점은 보았다

- 2H26 1) 국내/멕시코 엔진 가동률 상승, 2) 방산 매출 증가 긍정적
- 1) 방산 사업 매각 여부/방식, 2) 논오토 사업 확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현금 거래로 방산 매각 진행된다면, 자금 확보 → 신사업 기대감 반영 예상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90,000원 유지

TP 9만원은 2026년 EPS 6,574원에 Target PER 13.6배 적용

2H26 1) 국내/멕시코 중심 엔진 매출 및 2) 방산 매출 증가로 수익성 부담 제한적이라 판단. 주가는 1) 방산 사업부 매각 여부 및 방식, 2) Non-Auto 신사업 확장 가능성에 따라 변동성 확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현금 거래 방식으로 방산 사업 매각 진행된다면, 자금 확보 → 신사업 투자 기대감 확대에 따른 주가 반등 가능할 것이라 예상

2Q26 매출 2.4조원(YoY +8%, 이하 YoY), OP 504억(-11%), OPM 2.1% 시현

OP 당사 추정(408억) 상회, 컨센(576억) 하회하는 실적 기록. 1) 현대차/기아 국내 생산차질, 2) 러시아 물량 감소, 3) 멕시코 HEV 엔진 전환에 따른 물량 공백으로 손익 개선 제한적. 2Q 단가 정산, 방산 부문 매출 증가로 당사 우려 대비 수익성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

2026년 매출 9.4조(YoY +11%), OP 2,256억(+10%), OPM 2.4% 전망

2H26 1) 국내/멕시코 중심 매출 회복, 2) 방산 부문 매출 성장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개선 가시성 높다는 판단. 특히, 멕시코 감마2 T-GDI HEV 양산 효과 본격화되며 매출 및 손익에 긍정적인 기여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직전추정	잠정치	2026			3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179	2,179	2,141	2,354	8.0	8.0	2,215	2,430	12.9	3.2
영업이익	56	52	41	50	-10.6	-2.3	53	60	15.6	18.9
순이익	13	32	37	49	280.7	53.4	37	43	흑전	-10.8

자료: 현대위아,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8,181	8,482	9,385	10,048	10,505
영업이익	219	204	226	303	351
세전순이익	177	181	261	329	369
총당기순이익	129	117	182	253	284
자비자분순이익	120	99	179	248	279
EPS	4,429	3,641	6,574	9,130	10,247
PER	8.5	20.8	13.7	9.9	8.8
BPS	132,289	132,768	136,739	143,718	152,082
PBR	0.3	0.6	0.4	0.4	0.4
ROE	3.4	2.7	4.9	6.5	6.9

주: EPS와 BPS, ROE는 지배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현대위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6690.62
시가총액	1,53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13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1,300원 / 47,9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14억원
외국인지분율	19.24%
주요주주	현대자동차 외 4 인 40.74% 국민연금공단 7.3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8	-31.6	-35.5	10.8
상대수익률	10.4	-33.8	-51.9	-47.2



현대로템 (064350)

최정환 CFA

jeonghwachoi@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40,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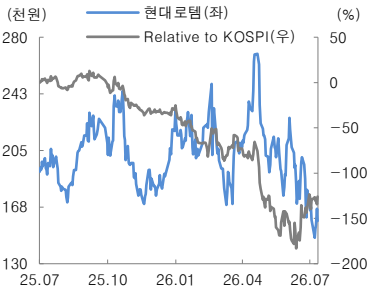
157,700

(26.07.24)

방위산업

KOSPI	6,690.62
시가총액	17,28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6%
자본금(보통주)	54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69,000원 / 147,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754억원
외국인지분율	38.6%
주요주주	현대자동차 외 2인 33.8% 국민연금공단 8.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9.0	-32.0	-23.7	-16.2
상대수익률	2.6	-34.2	-43.1	-60.1



2Q26 Review: 지연되는 수주, 아쉬운 실적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40,000원으로 하향 조정
- 연결 영업이익 2,324억원(-9.7% YoY, OPM 14.4%), 추정치 부합
- 27년 폴란드 EC2 K2PL 매출 일부 28년으로 이연 전망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40,000원으로 하향 조정

3Q26-2Q27 부문별 EBITDA에 Target EV/EBITDA 적용 후 SOTP 통해 목표주가 산출, 27년 디펜스솔루션 실적 추정치 하향을 통해 목표주가 하향 조정. 기대되는 수주 사업들은 중단된 것이 아닌 지연된 것으로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

2Q26 추정치 대비 매출액 하회, 영업이익 부합하는 실적 시현

2Q26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6,060억원(+13.3% YoY), 영업이익 2,324억원(-9.7% YoY, OPM 14.4%)로 추정치 대비 매출액(1조 8,070억원) 하회, 영업이익(2,350억원) 부합하는 실적 시현. 디펜스솔루션 수출 영업이익률의 경우 당사 추정과 유사하게 고마진인 폴란드 EC1 매출 인식 감소에 따라 1Q26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임. 다만 내수 매출이 추정치 대비 덜 인식되며 수출 비중이 당사 추정치였던 62.5% 대비 높게 나오며 전사 영업이익률 또한 추정치 13.0%를 상회

27년 폴란드 EC2 K2PL 매출 일부 28년으로 이연 전망

1) 디펜스솔루션: 폴란드 EC2 K2PL 64대의 경우 27, 28년 생산되며 2년간 나눠 매출 인식, 기존 27년 집중되던 EC2 K2PL 매출을 28년으로 이연시키며 27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당사는 페루 전차 사업 매출을 추정치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페루 사업 이행계약 체결 시 28년으로 이연된 폴란드 EC2 K2PL 물량에 대한 매출 공백을 만회하며 고성장세 지속될 것. 이라크 전차 사업의 경우 중동 정세에 따라 1H26 지연되었으나 2H26 정부와 연계해 영업활동 재개 예정이며 루마니아의 경우 27년 본격 진행 예정

2) 레일솔루션: 27년 수익성이 좋은 모로코 사업 생산 본격 돌입에 따라 매출액 3.3조원(+34.2% YoY)로 고성장 전망, 영업이익률 또한 수출 비중 증가에 따라 1.7%로 26년 0.6% 대비 개선 추정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4,384	5,839	7,383	7,012	8,860
영업이익	460	1,066	1,097	872	1,285
세전순이익	513	1,007	1,140	831	1,216
총당기순이익	408	772	853	635	929
지배지분순이익	407	771	837	628	918
EPS	3,727	7,067	7,666	5,749	8,411
PER	11.5	21.7	20.6	27.5	18.8
BPS	18,408	27,865	33,022	38,399	46,227
PBR	2.3	5.9	4.8	4.1	3.4
ROE	20.3	25.4	23.7	15.2	18.4

자료: 현대로템,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